

“한국 차산업·문화, 안방까지 배달합니다”



보성세계차엑스포, ‘코로나19’로 오는 9월 온라인 행사로 개최 세계차품평·블렌딩 대회, 심사과정·수상 발표 등 전과정 중계

보성군은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보성 세계차엑스포를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행사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제8회 보성 세계차엑스포는 오는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보성군 봇재 일원과 보성세계차 엑스포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찾아간다.

△보성차 특별 판매전, △세계 차품평 대회, △대한민국 티블렌딩 대회, △뮤직콘서트 △차차차 UCC 응모전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보성차 특별 판매전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인 보성차를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세계차엑스포의 핵심 콘

텐츠인 세계차품평 대회와 티블렌딩 대회는 심사과정과 수상발표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초록빛 차밭에서 펼쳐지는 뮤직콘서트도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또한, 다양한 차 관련 문화행사와 공연도 준비되어 있으며, 차 문화가 생소한 일반인들도 자연스

럽게 차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젊은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보성 세계차엑스포를 준비 중”이라며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전과 걱정 없이 모두가 즐거운 엑스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박종균 장도장 제작과정 공개
광양시, 오는 30일부터 3일간



최근 옹천 장도 아트카페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민공감 토론회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11명의 현장 패널, SNS 패널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의료, 교육, 복지 등 11개 분야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치고 있다.

여수시, 포스트 코로나 토론회 ‘성료’

100명 의료·교육·복지 등 11개 분야 논의

여수시는 코로나19 이후를 내다보고 대응책을 찾기 위해 마련한 ‘포스트 코로나 시민공감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지난 24일 옹천 장도 아트카페에서 ‘코로나19 이후 여수시 과제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 11명이 현장 패널로 참여했고, SNS 패널 100여 명도 토론회에 함께했다.

토론회 발제 첫 주자로 나선 이혜웅 한국병원 신경외과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바이러스 질환이 발생하면 지역 간 봉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응급질환자 사망률 급증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뇌혈관, 심혈관, 중증외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분야 정재천 여수시학부모

연대 공동대표는 “온라인 개학은 사회적 약자와 일반인의 교육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면서 “학습도우미의 역할과 디지털 기기 보급 등 교육여건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인분야 김병철 한영대 겸임교수는 “코로나19로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노인복지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다”면서 “지역 사회 전체가 노년층을 돌보는 커뮤니티 케어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이밖에도 패널들은 장애인단체별 복지관 및 체육관 순번제 이용, 북한 관광에 따른 여수 관광 침체 문제 해결,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관광객 유입의 중단적,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 직업 훈련 개발,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보호 등을 발표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순천시, 주민총회 새로운 시도로 주민참여 높여

권역별 주민총회·온라인 생중계·사전투표로 주민이 직접 내년 사업 결정

순천시가 최근 중앙동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8개 면·동에서 내년에 추진할 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추진하고 있다.

각 면·동 주민자치회는 내년에 진행할 주요 사업 발굴을 위해 마을계획단을 구성하고, 지난 3개월에 걸친 워크숍과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사업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발굴된 사업들은 주민들의 최종 의결절차인 주민총회를 통해 우선 순위가 결정되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 실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주민총회,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총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총회가 개최되고 있다.

지난 14일 가장 먼저 주민총회를 개최한 중앙동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찾아가는 주민총회로 진행되고,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도 동시에 진행했다.

외서면은 지난 21일부터 3일간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각 마을별로 찾아가는 사전투표를 진행하면서,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사업

의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을 미리 각 마을로 송출해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중앙동은 전체 주민의 8.4%인 26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외서면은 사전 투표 기간 총 529명이 투표에 참여해 57.8%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해 중앙동 240명(7.2%), 외서면 225명(24.5%)보다 높아진 수치로 순천시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시도가 주민들의 호응을 얻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두례 중앙동 주민자치회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권역별 총회와 온라인 생중계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많은 주민에게 알리고 결정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양제철-금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업무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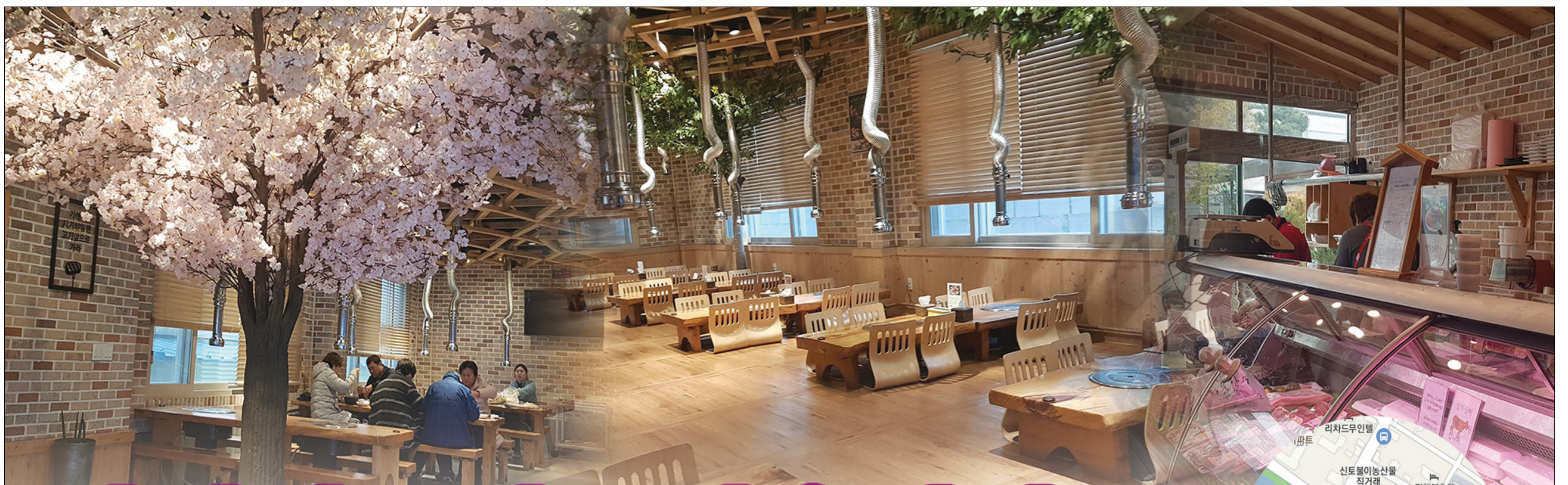
광양시는 오는 30일 광양시청 2층 상황실에서 광양제철소와 ‘금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이시우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박성진 포스코 산학협력역량장, 유주현 포스텍기술지주 대표, 박재

홍 APGC협의회장, 안성수 광양벤처밸리기업협의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호동은 1980년대 광양제철소 입지와 함께 형성되어 시설 노후와 세대변화 등의 과다기를 맞이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

